

노인의 동아리 활동과 삶의 변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

노은영*

A Qualitative Case Study about Club Activities and Life Changes of Senior Citizens

-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

Eun Young Roh*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는지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활동이론이 우리나라 노인 동아리 분야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서울시내 2곳의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6명의 노인들을 심층 면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들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 '심신의 건강',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다른 여가활동으로의 연결', '사회적 교류 확대',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활동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관 동아리의 활성화 방안과 여가활동의 다양한 결합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다.

주제어 : 노인 여가, 동아리 활동, 생활만족도, 활동이론, 질적 사례 연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fe changes of senior citizens via club activities at senior welfare centers and to explain their experience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A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six senior citizens who have experienced club activities at senior welfare centers. This study addressed important issues for each case by analyzing data and found common issues from whole cases as results, the life changes of senior citizens via club activities at senior welfare centers are composed of 'health of body and mind', 'promoted self-esteem and morale', 'connecting with other leisure activities', 'expansion of social interchanges' and 'perception changes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s supporting the activity theory, according to which higher life satisfaction of Korean senior citizens is deeply related with participating in the club activities. In addition, this research have implications for the clinical practice as following: (a) discussing ways to encourage club activities at senior welfare centers; (b) suggesting the ways to combine various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c) reconfirming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to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Key Words : leisure activity of senior citizens, club activity, life satisfaction, activity theory, qualitative case study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Combine Masters and Ph. D. Program, Social Work, Yonsei University),
E-mail: rohey@yonsei.ac.kr, Tel: 02-2123-6203

I.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변화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¹⁾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던 기존의 노인들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한 신체, 고학력, 경제력을 갖춘 집단이다(이순희 외, 2011). 여가생활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창의적인 여가 활용과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다(김수봉 외, 2011). 평균 수명이 연장된 '100세 시대'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년은 여가활동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 강습이나 특별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친목 모임은 노인들의 이러한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여가활동방식 중 하나가 바로 동아리이다. 동아리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노인동아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같은 취미를 가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함께 여가를 보냄으로써 건강한 배움의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존의 여가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전국 읍·면·동 지역에 227개의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1만 개의 학습동아리를 만드는 등 지역기반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²⁾을 마련하여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노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평생교육분야에서 학습동아리 참여노인의 학습경험 과정(한우식·기영화, 2010)과 노인 학습동아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한 과정과 요인(김정진·이성엽, 2013), 노인동아리의 의례적 학습과정(장소은·이병준, 2014a)과 사회적 공간 담론 관점에서의 노인동아리 사례(장소은·이병준, 2014b)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김영민(2013)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노인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간의 노인 동아리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더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인복지관에서의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관 이용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최정민 외, 2011; 황성완·최양자, 2011; 김춘길·박혜자, 2007)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건강(김남희·송경애, 2009; 김은하·이지원, 2009), 우울(안미향·김경은, 2012; 이해경·이병록, 2011), 사회적 관계(곽윤길, 2010)

1)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을 말하며,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인 712만 명으로 추계된다(통계청, 2010).

2) 교육부에서는 2013년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등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 또한 생활체육(이민규·원영신, 2013; 장호중·김정목, 2011; 이혁, 2009), 일자리 사업(고재욱·이동열, 2011), 집단 여가상담(이현립 외, 2005) 등 노인복지관의 특정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활동이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미혜·정진경(2003)이 노인자원봉사와 연결해 진행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 연구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노인 복지관의 동아리 활동 이후 노인이 경험하는 생활의 변화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활동이론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관의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노인들은 어떠한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둘째, 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변화에 활동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1. 노인복지관에서의 동아리 활동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노

인여가복지시설³⁾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에게 심신의 수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및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에게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교실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가장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로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30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3).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등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과 건강·보건, 소득보장, 재가를 비롯한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취미 여가, 고용, 건강생활, 정서생활, 사회참여, 주거, 소득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노인 동아리 활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관 동아리는 동아리 설립을 원하는 일정 인원의 회원들이 모여 담당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동아리 회칙과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기관의 설립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김영민, 2013).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야유회, 발표회 등을 진행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것이다. 근래에 동아리는 노인복지기관의 중심적인 활동 집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생활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복지재단, 2006). 동아리는 자치적 성격을 갖는 또래집단이자 소집단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

3)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함.

징이 있고, 동아리의 유형은 활동내용별로 문화예술, 학술, 스포츠, 취미오락, 종교, 사회봉사, 실습노작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민, 2013).

국내의 노인 동아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먼저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동아리와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보다는 성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지속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장소은·이병준, 2014b). 노인동아리와 관련해서는 학습동아리 참여노인 9명을 대상으로 학습경험 과정에 대해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한우식·기영화, 2010), 노인들은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고 학습경험의 중심현상은 지식의 공유와 인간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장소은·이병준(2014a)은 탁구동아리 활동을 관찰하고 동아리 회원 5명을 인터뷰하여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노인들이 주체성과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학습함을 밝혔다. 또 동일한 동아리를 연구 대상으로 노년기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동아리 활동을 연구한 결과, 노인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배움터를 만들고 공동체의 연대성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소은·이병준, 2014b). 김정진·이성엽(2013)은 컴퓨터 학습 노인 동아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근거이론방법으로 연구하여 '노년과 학습의 결합이 생산적 변화의 동력'이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동아리 활동이 일자리, 자원봉사활동 등 다른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 김영민(2013)이 노인 동아리 활동 참여자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에서 동아리 활동이 자신에게 적합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참여자 간 관계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노인 동아리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련성을 밝혀냈으나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양적 연구로서의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은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인생을 성찰하고 활력을 얻었으며(한우식·기영화, 2010), 높은 생활만족도, 배움의 즐거움, 자아실현을 경험하고 사회적 고립감, 신체적 무력감, 외로움을 극복하였다(장소은·이병준, 2014a).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노인의 생활 변화는 노인 동아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 동아리 활동이 노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활동이론을 통해 본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

활동이론(Havighurst et al., 1968)은 노인이 되어도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상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는 것이다(Bengtson, 1969). 따라서 노인들이 강제 퇴직이나 건강 저하 등으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받으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므로 상실

된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Lemon et al.(1972)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였다. 노년기의 활동은 노인이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한다. 노인이 활동에 참여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역할을 지지받고 가치를 평가받으면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이는 높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활동은 본인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 즉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대인관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최성재·장인협, 2012). 따라서 노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만족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erzog et al., 1989).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성희자·전보경, 2003; 전영갑·이재근, 2006; 김종범, 2007; 백종욱 외, 2010; 오종희·전리상, 2010; 이봉진·홍상욱, 2012), 사회활동(오승환, 2007; 조용하, 2009; 안종철, 2014), 자원봉사활동(서상범·정종식, 2006; 최혜강·김안자, 2010; 류기형, 2013) 등 노인의 활동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활동이론이 노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활동이론은 노동의 윤리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형성된 이론으로 다른 사회문화권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최성재·장인협, 2012),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활동이론의 실질적인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김미혜·정진경(2003)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노년기 역할 상실의 대체적 역할로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원봉사활동 헌신의 정도가 노인의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활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내 25개 자원봉사센터에서 192명의 노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원봉사 헌신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자원봉사의 투입시간보다는 질과 의미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활동이론을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 분야에 적용한 실증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질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변화된 노인의 삶에 대해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활동이론의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노인들의 경험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때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이 향상된다.

둘째,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

셋째, 노인이 되어 감소된 기존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활동의 참여를 개발하는 것은 노후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인관계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

Ⅲ. 연구방법론

1. 사례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

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생활의 변화를 겪는지 그들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공간적 경계와 동아리 활동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어떻게’ 노인들의 삶이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므로 질적 연구방법 중 다중 사례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사례 연구는 하나의 현장이나 맥락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이슈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Creswell, 2006). 연구문제가 ‘어떻게’ 또는 ‘왜’ 특정 사회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 현상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Yin, 2008). 사례 연구에는 단일 사례 연구와 다중 사례 연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중 사례 연구가 단일 사례 연구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공고한 연구로 인정된다(Herriot and Firestone, 1983). 다중 사례 연구는 반복 연구로 단일 사례 연구에 비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왜, 어떻게 특정 결과가 산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Yin, 2008).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하기 위해 먼저 노인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M 노인복지관과 S 노인복지관 2곳을 접촉하였다. M 노인복지관에는 24개의 동아리, S 노인복지관에는 30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어 두 복지

관 모두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M 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사업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간담회, 동아리 임원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동아리 박람회 등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S 복지관에서는 문화영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입회원 교육, 야유회, 발표회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기관 사회복지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편의선택방법과 연구참여자로부터 다른 연구참여자를 추천받는 단계적 표본추출방법을 병행하였다. ‘좋은 정보제공자(Flick, 2002: 136 재인용)’ 요건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노인 중 2년 이상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하여 비교적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노인 6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활동 동아리가 겹치지 않게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노인복지관의 주 이용대상인 여성 노인과 70대 노인이 연구참여자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는 춤(에어로빅, 우리 춤, 라인댄스), 악기(하모니카, 풍물), 외국어 봉사(홍보 및 통역) 등으로 다양했다.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교적 풍부한 동아리 활동 경험을 수집할 수 있었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를 일대일로 만나 상담실이나 회의실 등 조용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	소속	참여 동아리 ⁴⁾	혼인상태	동거가족
참여자 1	여	77	M 노인복지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풍물	사별	독거
참여자 2	여	75	M 노인복지관	우리 춤	기혼	배우자
참여자 3	남	87	M 노인복지관	홍보 및 통역	기혼	배우자, 손자
참여자 4	남	70	S 노인복지관	하모니카, 방송	기혼	배우자
참여자 5	여	70	S 노인복지관	라인댄스	사별	독거
참여자 6	여	76	S 노인복지관	풍물, 서예, 민요	사별	독거

한 곳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1명당 1~2회씩, 회당 약 1시간 정도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한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는 사례 연구 프로토콜을 통해서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각의 질문 후에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표정, 몸짓, 환경 등에 대해서는 현장노트를 통해 별도로 기록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을 사례로 설정하여 그들의 경험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둘째, 사례별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생활변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았다. 셋째, 전체적인 맥락 속

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하며 의미 있는 진술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의미단위를 정리하였다. 넷째,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더 큰 범주인 하나의 주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가 아닌 여러 개의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논리를 확인해가는 다중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뿐 아니라 현장노트, 동아리 활동 모습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통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관련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2인에게 인터뷰 프로토콜과 자료 분석 결과 도출된 이슈와 주제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6개의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단위를 확보한 후, 전체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복지관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변화된 노인의 삶의 경험을 아우르는 중요한 공통된 주제들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심신의 건강’,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

4) 연구참여자가 2개 이상의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경우 주로 많이 활동하는 순으로 작성하였다.

상, '다른 여가활동으로의 연결', '사회적 교류 확대',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심신의 건강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동아리 활동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건강한 마음'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였다. 내가 배운 것을 남들에게 보일 때 재미가 있고(참여자 1, 4, 6), 우울한 마음이나 스트레스도 사라진다(참여자 2, 5, 6). 동아리 활동이 즐거우니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이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즐겁고 희망차다(참여자 3, 4).

우리 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춤 배우고 연습 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복지관 오면 위 낙 많이 웃어요... 동아리 하고 나서 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해요. 활기 차다고... (참여자 2)

나는 젊어서 혼자가 되었는데 여기 나오면 외롭지 않아요. 전에는 많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랬죠. 라인댄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동아리 모임에, 강습에, 공연 연습에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해지고 좋아요.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향상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참여자 1),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참여자 1, 2, 5).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70대 이상의 나이임에도 60대라 생각될 만큼 젊고 생기 있어 보였다. 특히 자신이 활동하는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고 활력이 넘쳤다.

에어로빅 동아리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약했는데 에어로빅을 꾸준히 하면서 먹던 약도 다 끊을 만큼 건강해졌어요. 또 즐겁고... 에어로빅하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젊게 봐요. 우리가 단체로 유니폼 싹 맞춰 입고 착착 동작 맞춰서 에어로빅하면 인기가 아주 좋죠. (참여자 1)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겪는 부분이 바로 신체적 노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흥미로운 부분은 신체가 건강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전보다 신체가 더 건강해졌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이다. 심리적인 면은 좀 더 명확히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겪었던 외로움, 우울함,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통해 노인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되찾게 되면 더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심신이 더욱 건강해지는 선순환의 과정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이 생산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심신이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활동이론의 주요 내용과 연관된 부분으로 이론이 어떻게 실제 노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람, 자신감, 성취감, 자랑스러움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오랜 기간 연습하여 마침내 무대 위에 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였을 때 이런 감정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공연을 하는 것이 떨렸지만 공연을 통해 호응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고 남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자신감을 준다(참여자 1, 6). 무대 위에서 흥분되고 스타가 된 느낌이라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참여자 2, 5),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익힐 때마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낀다(참여자 3, 4).

복지관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을 내가 영접해요. 복지관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나가서 안내하고 통역하는 거죠. 그래서 내 별명이 '홍보대사'예요. 동아리 활동하며 사회복지사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최고죠. 지난번에는 일본 손님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고맙다고 고급과자를 정성껏 포장해서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나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성취감이 있어요. (참여자 3)

이렇게 향상된 자존감은 동아리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을 느낀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의욕이 생긴다(참여자 2, 4, 5). 또한 동아리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건강관리, 어학공부 등 생활 여러 전반에 새로운 목표가 계속해서 생기기도 한다(참여자 3).

우리 춤 동아리 하면서 자신감이 상당히 높아졌죠. 전국 대회 있으면 여름에 3주간 방학도 없이 연습을 해요. 힘들고 피곤하기는 한데 단채로 같이 춤을 추는 거니 누구 한 명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서 25개 팀이 모였는데 우리가 1등을 하고 큰 상패도 받았지요. 춤 연습하고 대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러고 나면 다른 일을 할 때도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참여자 2)

하모니카 동아리에서는 화음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화음이 잘되면 정말 뿌듯해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동안은 일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 몰랐는데 동아리 활동하면서 '어우,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었죠. 뭘 해보겠다는 의욕이 강하니 제2의 인생이죠. (참여자 4)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꺼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느꼈고 이는 자존감 향상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공연이나 대회 등의 목표가 생기면 더욱 동아리 활동에 매진하게 되고, 공연이 끝난 뒤에 사람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으면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의 중요함이 드

러났다. 이는 활동이론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만족감을 갖고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심리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3. 다른 여가활동으로의 연결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소극적인 성격이라 처음에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배우는 재미에 빠져 점점 더 많은 동아리에 가입하여 참여하게 되고(참여자 1, 6), 동아리 활동에서 실력을 향상하고자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따로 하고(참여자 3), 동아리 활동과 연관된 다른 활동에도 관심이 생겨 새로운 동아리를 창단하기도 한다(참여자 4).

그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품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니까 배울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예 동아리도 가입하고 민요 동아리도 또 가입했어요. 요즘엔 뭐든지 더 배우고 싶어요. (참여자 6)

동아리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에 동아리 활동을 하러 매일 나오다 보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참여자 1, 5), 동아리에서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 상금을 받으면 복지관에 상금을 기부한다

(참여자 1, 2). 자신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재능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도 많았다. 지역사회 내 경로당, 성당, 교회 등을 다니며 무료로 공연을 하거나(참여자 1, 5), 동아리에서 배운 것을 결혼 이주민 여성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이나 노인복지관에 있는 다른 노인들에게 가르치며 봉사를 한다(참여자 2, 4).

동아리 활동하면서 놀이, 여행, 자원봉사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는 거지요 우리 춤 공연요청이 오면 하나의 자원봉사처럼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가지요, 우리는 자원봉사이자 즐기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회 나가서 받는 상금은 우리가 안 쓰고 복지관에 기부를 해요. (참여자 2)

우리도 복지관에서 라인댄스를 무료로 배우니까 또 우리가 배운 만큼 복지관이나 동네에 계신 여러 노인들에게 라인댄스를 가르쳐 주면서 봉사하려고 해요. 공짜로 배우고 공짜로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참여자 5)

노인이 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제도상의 이유로 은퇴를 경험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사회적 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자아정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최성재·장인협, 2012).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우울증과 자살문제⁵⁾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감소하거나 상실된 기준

5)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0.3명으로 지난 2000년 43.02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이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60명에 달했다. 노인의 11.2%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보건복지부, 2012a).

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배우는 재미를 느껴 다른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관련된 공부도 하는 등 추가적인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배우고 기쁨을 얻는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론적 기반으로 활동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미혜·정진경, 2003). 이는 동아리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이나 추가적인 여가활동으로 연결되어 연구참여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배우는 재미, 나누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등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4. 사회적 교류 확대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등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었다.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자발적으로 모인 동아리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참여자 4, 6).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보여주는 발표회, 공연, 대회 등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시간 함께 연습을 하고 이 과정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더 단결됨을 느낀다(참여자 1, 5).

하모니카 동아리에서 같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

니 동아리 회원끼리는 더 친밀감이 있죠. 결속감이 생기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호흡하는 게 즐거워요...: 동아리 모임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뿐이지만,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동아리 사람 두세 명이 모이면 시시때때로 같이 하모니카를 붙어요. (참여자 4)

가족들은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가 혹시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에 동아리 활동을 응원한다. 자녀 및 손자녀가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보여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참여자 1, 3, 4, 5), 가족들이 공연을 보러오기도 한다(참여자 1, 5). 또한 가족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친구들도 연구참여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참여자 2, 6).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식들도 (라인댄스 동아리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동아리 하면서 이야깃거리도 많이 생기고 사이가 더 좋아졌죠. 며느리하고 아들은 먼 데 사니까 전화로 이야기하고 딸은 대회 같은 거 하면 손녀를 데리고 구경 오지요. 손녀가 유치원 가서 우리 할머니가 춤 잘 춘다고 자랑한대요. 내가 춤추는 것을 얼마나 잘 따라 하는지 몰라요. (참여자 5)

주위 사람들한테 풍물 동아리 활동하는 거나 발표회 같은 거 있다고 자랑해요...: 그럼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풍물 공연 때 구경 와서 잘한다고 칭찬도 하지요. (참여자 6)

노년기에는 은퇴를 비롯하여 많은 역할상실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도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가족과 이웃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활동이론은 자기 주변의 인물로부터 받는 반영적 평가에 의해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근거를 두고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정옥분 외, 2008). 따라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사회적 교류의 확대와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활동이론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5.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로 인해 스스로, 또 주변의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젊어진 기분을 느낀다(참여자 1, 5, 6).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들 나이가 많아도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본인에게 자극이 되기도 한다(참여자 4). 연구참여자 스스로도 본인과 주위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하나둘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은 너무 힘이 없고 적극적인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뭐든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니 저렇게 늙는 건가 싶어 슬퍼져요. 여기(노인복지관)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니 젊어지는 기분이고 신이 나요. (참여자 6)

한무 동아리가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늙어도 동작 하나하나가 대단해요. 서서 품 잡고 있는 것 가만히 보면 노인네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하모니카 동아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배우려는 마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진짜 강하고요. 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 보면 80세 넘어서도 다들 열성이 남달라요. (참여자 4)

노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된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 동아리 회원들의 공연 모습을 보면서 '노인네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참여자 2)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 하나가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잘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노인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연구참여자들이 만난 일반 대중들은 연구참여자의 적극적인 면에 놀라면서(참여자 3), 동아리 활동 모습을 보고 노인들은 수동적이고 삶의 의욕이 없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참여자 5).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춤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도 생각하고... 노인들이 이렇게(춤) 잘하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노인네 같지 않대요. 우리가 다들 70세 넘었다고 하면 끝이 안 들어요. (참여자 2)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동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이 어떠한 생활의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러한 경험에 노인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이론적 근거인 활동이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내 2곳의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시행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겪는 공통된 생활의 변화 경험은 '심신의 건강',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다른 여가활동으로의 연결', '사회적 교류 확대', '노인에 대한 인

식의 변화' 등 5개의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심리적으로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하였고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도 향상되었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 생겨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다른 여가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주위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여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이러한 노인의 생활변화 경험은 활동이론의 주요 내용과 연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심신의 건강과 자존감 및 행복감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활동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 다른 여가활동과 연결되어 노년기의 새로운 대체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상징적 상호주의 측면에서 보면 동아리 활

<표 2> 동아리 활동 경험으로 인한 노인의 생활 변화와 활동이론 주요 내용의 연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경험한 생활의 변화	활동이론의 주요 내용
심신의 건강	노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때 심리적 만족감이 향상됨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생활만족도가 향상됨
다른 여가활동으로의 연결	감소된 기존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활동의 참여가 노후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사회적 교류 확대,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됨

동으로 인해 주변 타인에게서 역할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되고 이는 노인이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높은 생활만족도를 갖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관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많은 노인복지관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강습 형태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향후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여가문화와 맞물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기관 차원에서 활동비용이 일부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의상비, 물품 구입비, 이동 차비 등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노인의 경우 비용의 부담으로 동아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노인복지관뿐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동아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도 다양한 기관에서 동아리 활동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동아리의 특성을 십분 살려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연, 발표회 등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하여 어떠한 목표를 주고 그것을 달성하였을 때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둘째, 노인 여가활동을 결합하여 노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기존에 노인들의 여가선용방법 중 학습과 자원봉사활동은 분리되어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노인 동아리 활동은 학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고 동아리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노인이나 소외계층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의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회에서 수상하여 받은 상금을 기관에 기부하는 형태, 동아리 참여를 위해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노인복지관 내 다른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 등이 있었다. 이는 학습과 자원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노인동아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활동이론과 연계하여 노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결여, 심리적 위축 등 노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활동이론에서 설명하는 부정적 자아 형성의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구, 이웃, 공연관중 등 주변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 지지, 칭찬, 격려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힘이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인과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천적·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노인 동아리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노인들이 동아리를 통해 경험한 생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동아리 활동 이후 변화된 노인의 생활이 활동이론과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보여준 연구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복지관의 지원 정도나 동아리 활동 참여의 적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로서 연구참여자의 수 역시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경계인 동아리 활동 전과 후를 비교함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변화가 없는 부분이므로 연구참여자의 나이, 혼인상태, 동거가족 외에 다른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질문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를 반영하여 더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한 양적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재욱·이동열,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31(4): 1209~1228.
- 곽윤길, 201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댄스스포츠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27~42.
- 교육부, 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김남희·송경애, 2009, “복지관 이용 노인의 건강증진생활양식과 건강지각”, 『기본간호학회지』, 16(4): 481~489.
- 김미혜·정진경, 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221~243.
- 김수봉·권중돈·조한중·문병윤·김지연, 2011, 『고령친화 여가산업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민, 2013, “노인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이지원, 2009, “복지관 이용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면의 질 및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29(2): 425~440.
- 김정진·이성엽, 2013, “노인 학습동아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한 사례 연구: ‘은빛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지』, 16(3): 35~59.
- 김종범, 2007,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변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4(1): 71~99.
- 김춘길·박혜자, 2007, “복지관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9(4): 535~546.
- 류기형, 2013,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동기충족이 생활만족 및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145~172.
- 백종욱·김성오·김미양, 2010,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 7(1): 37~58.
- 보건복지부, 2012a,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_____, 2012b, 『2012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 _____, 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 서상범·정종식, 2006,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분석: 자원봉사활동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3(1): 157~177.
- 서울복지재단, 2006, 『사회교육매뉴얼』.
- 성희자·전보경, 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 중심으로”, 『한국복지행정학회지』, 13(2): 151~169.
- 신경식·서아영(역), 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Yin, R. K., 2008,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CA: SAGE).
- 안미향·김경운, 2012, “복지관 방문노인의 삶의 질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8): 3544~3551.
- 안종철, 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4): 189~210.
- 오승환, 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도시, 농촌, 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209~231.
- 오종희·전리상, 2010, “노인의 여가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21세기사회복지연구』, 7(2): 161~186.
- 이민규·원영신, 2013,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건강증진 형성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1): 313~324.
- 이봉진·홍상욱, 2012, “노인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8(2): 139~156.
- 이순희·허선희·홍순영, 2011,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혁, 2009, “노인복지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동기와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839~850.
- 이현림·최숙경·김영숙, 2005, “노인을 위한 집단여가상담 프로그램이 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3): 745~759.
- 이혜경·이병록, 2011,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기능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38: 201~225.
- 임은미·최금진·최인호·허문경·홍경화(역), 2009,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Flick, U., 2002,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4th ed., CA: SAGE).
- 장소은·이병준, 2014a, “노인동아리의 의례적 학습과정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2): 63~88.
- _____, 2014b, “G. Simmel의 사회적 공간담론 관점에서의 노인동아리 사례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2): 153~177.
- 장호중·김정목, 2011, “노인복지관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참가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309~322.
- 전영갑·이재근, 2006,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3(3): 243~272.
- 정옥분·김동배·정순화·손화희, 2008, 『노인복지학』, 서울: 학지사.
- 조용하,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수준에 관한 인과적 분석”,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1): 1~28.
-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역),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Creswell, W., 2006,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CA: SAGE).
- 최성재·장인협, 201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정민·권구영·박민서·이수애, 2011,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31(1): 63~77.
- 최계강·김안자, 2010,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191~218.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우식·기영화, 2010, “노인학습동아리 참여노인들의 학

- 습경험 과정”, 『평생교육·HRD연구』, 6(3): 191~210.
- 황성완·최양자, 2011, “사회복지관 이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전인건강과학회지』, 1(1): 55~64.
- Bengtson, V. L., 1969, *Cultural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in level of present role activity in retirement. Adjustment to retirement: Across national study*, Netherlands: Van Gorkum.
- Havighurst, R. J., Neugarten, B. L., and Tobin, S. S., 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rriott, R. E. and Firestone, W. A., 1983, “Multisite qualitative policy research: Optimizing description and generalization”, *Educational Researcher*, 12: 14~19.
- Herzog, A. R., Kahn, R. L., Morgan, J. N., Jackson, J. S. and Antonucci, T. C.,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4(4): 129~138.
- Lemon, B. W., Bengtson, V. L., and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511~523.

원 고 접 수 일 : 2014년 11월 3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21일
 2차심사완료일 : 2015년 1월 5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5년 1월 29일